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녹) 연중 제15주일(농민 주일)

2023년 7월 16일 (제2041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서 55,10-11

화답송 시편 65(64),10-12,13,14(◎ 루카 8,8)

-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18-2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3,1-23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가]	8시	입당 439	봉헌 332	성체 특송	파견 63		
	11시	입당 2	봉헌 221	성체 176, 166	파견 401		
연중 제15주일	7월 16일(일)		7월 18일(화)	7월 19일(수)	7월 20일(목)	7월 21일(금)	7월 22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황혜정 데레사					성령 기도회
독서	강신호 요한 김영선 안젤라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성령 기도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선미 에스터

■ **예비신자 모집 및 교리**

- 예비신자 모집/교리 신청: 7월 30일(일)
- 예비신자 교리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7월 22일(토) 11시 미사 : 성령기도회

■ **본당 신부님 비자 관련 한국 방문(7/17~8/4)**

- 한국 방문 기간 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7/22(토), 23(일) : 양필립 신부님
- 7/29(토), 30(일) :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몬트레이 성당)

■ **구역 모임 안내**

- 오클랜드: 7/16(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프리몬트: 7/16(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알바니: 7/16(일) 오후 2시, Memorial Park
- 유니언: 7/23(일) 오후 1시 강실비아 댁
- 알라메다: 7/23(일) 오후 5:30 BB Bowl
- 리치몬/버클리: 7/29(토) 오후 5시 임석호 베네딕토 댁
- 캐스트로벨라: 7/29(토) 오후 5시 김현규암브로시오 댁

■ **황금빛인생 일일 행복크루즈여행**

- 날짜 : 9월 5일(화), 4시간, 베이지역 크루즈여행
- 점심 : 선상에서 우아하게 합니다.
- 모이는 시간과 장소: 오전 10시 30분까지
2394 Mariner square drive Alameda Ca 94501, 오세요.
- 크루즈여행노선: SF야구장, SF도심스카이라인, 금문교, 엔젤아일랜드, 알카트라즈, 트레저아일랜드, 베이브리지
- 신청마감일: 8월 20일(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절대 취소**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 : 황금빛인생위원 이선미에스터(오일공-구일구-육오육칠) 사목회총무 유인웅다윗(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육승주 아오스딩,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 **성경 통독**

- 7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1,1 - 43,33)
- 성경필사노트를 성물방에서 교환해가세요.

■ **미사전례복사자 모집**

- 미사전례복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이스라엘 성지순례(11월 8일 출발) 모임**

- 일시: 8월 13일(일), 오후 1시, 성당
- 이스라엘 성지순례 설명회 및 성지순례 참여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 안내

■ **밥나눔 안내**

- 메뉴 : 고등어조림, 떡만둣국, 순두부, 비지찌개, 육개장, 클렘 차우더숲, 와플, 모짜렐라호떡만두, 컵라면, 커피/음료
- 이번주까지 7월에 세 번 밥나눔을 한 관계로 이번주 이후에 7월 마지막주까지 밥나눔은 없습니다.

■ **하상회 여름캠핑**

- 일시: 8/5(토) 2 pm ~ 8/6(일) 12pm (1박2일)
- 장소: Mount Diablo State Park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제27차 북가주 성령대회 신청 및 회의**

- 8/12(토) 오전 8:30~오후 6:00 본당
- 북가주 성령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 * 위원장: 염명련 패트리샤(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 * 위원: 사목회장/부회장/총무, 총구역장, 평협회장, 성모회장, 밥봉사회장, 대건회장, 하상회장

■ **서중부 여성 14차 꾸르실료 주말**

- 일시 : 7월 20일 - 23일(3박 4일)
- 문의 : 이경란 베로니카 (오일공-육팔팔-공일오오)
- * 친교실에서 빨랑카를 받고 있습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한국무용관람과 노래자랑 준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평신도협의회, 사목회, 성모회, 밥나눔회, 빛자루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마가렛(7/20): 권재복
- *다니엘(7/21): 김용봉, 최대연, 천종욱
- *마리아 막달레나(7/22): 이선희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음이라는 것이 향주덕의 하나로서 결국에는 하느님 은총으로 이뤄지는 신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덕은 아닙니다. 은총의 차원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곰곰이 따지고 살펴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믿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을 만함이라는 근거가 부족할 때에도, 정말 그런지 아닌지 고개를 갯웃하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기도 합니다. 희망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든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아무리 해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라면, 이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믿음 또는 그릇된 신념일 뿐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그 자체로 질문을 받아야 할 신앙'(「교황청 고위 관료들에게 한 성탄 인사」 2017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성찰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먼저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행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와 상식에 맞는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죠? '나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이다'(탈출 3,15 참조) 말씀만 하시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믿기를 바라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하느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 백성을 돌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그들을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저 말씀만으로 당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그밖에 다른 기적을 많이 행하시죠. 그를 통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하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인간적인 이해와 근거에 바탕을 둔 차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근거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근거를 뛰어넘는 신비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나 예수님의 신성, 부활의 신비 등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넘어서서 알 수 없는 신비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어떤 협력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을 만한 근거에 대한 체험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 자체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더라도 그 일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달라서 그 안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나 감정적인 반응,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향 마을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돼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다양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좋게 말하기도 하지만(루카 4,22 참조),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더러 목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며 또 그의 누이들도 자신들과 함께 나자렛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마르 6,3 참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모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마르 6,5-6)라고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일부러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었던' 일이 있다는 이 성경 표현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총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은총을 더 받고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은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준비나 자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가톨릭신문, 2018년 4월 22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0 명	198 명	238명

주일 헌금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황금빛 인생	선교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권영현(7-9), 정병구(7-9), 박명호(7-12), 이범준(6-7), 김복희(7-8), 조우송(8), 정석준(3-7), 최윤기(7), 신우현(5-6), 이덕용(6), 임장만(1-6), 최몽렬(7-8), 지영남(5-8), 이육경(6), 임유지(7-12), 육승주(6)					최윤기, 이덕용, 임유지	김영순, 최동식, 홍승천	정병구, 이범준, 김영순, 최윤기, 이덕용, 임장만, 임유지	본당신부님	이육경	김영희, 박명호, 김복희, 이육경, 익명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7/16(일)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7/16(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생 주임신부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미나	김정임 마리안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황정숙 말찌나	김영선 안젤라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정희 올리안나	김영선 안젤라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김나영 티아도라	김영선 안젤라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김옥순 아네스	임안젤라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네스가족		생 김영백 안토니오	이아나스타시아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김옥자 마리아	김엘리사벳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생 소명환 베드로	김엘리사벳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이규호 요한	김엘리사벳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이영기 마테오	육아오스딩
	연 정미카엘	가족		생 천다니엘/아네스	심데레사
	연 김마르코	가족		생 부르스 아론조 발바라	전데레사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생 안아네스/박시몬	전데레사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권영현 바실리오	이베로니카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연 김화순 안나	가족	7/15(토)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레산델/스텔라
	연 박영실 데레사	양수산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양수산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John Blain	육아오스딩		연 John Blain	육아오스딩
	연 김윤정 바오로	이아나스타시아		연 한서연 수산나	박헬레나
	연 송규선 마리아	황데레사		연 한서연 수산나	김정희 유릿다
	연 황문환 마르코	황혜정 데레사			
	연 연옥 영혼	이에스터		생 주정희 마리아	이에스터
	연 한서연 수산나	박헬레나		생 천다니엘/아네스	심데레사
	연 한서연 수산나	김정희 유릿다		생 정민영 다니엘	정일양 안드레아
	연 한서연 수산나	김엘리사벳			
	연 한서연 수산나	김찬곤 안드레아			
	연 허용조	허수원로렌조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	---	---------------------------------	--	---------------------------------